

주일 예배 11시

2017년 9월 3일 (첫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주 은혜를 받으려(39장)	다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께
*교독문	52번	다 함께
*찬송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538장)	다 함께
기도		현윤경 집사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89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누가 죽은 자인가?(사무엘하 11장 14-25절)	
*찬송	이 세상 끝날까지(44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일(10일)에 성찬식을 가집니다.

-주일예 찬양으로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김성진 집사에게 신청)

-성경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시편 119(48-144절까지 매일 16절씩) 마태복음

- 기도해 주세요-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순례자의 목상

깨어 있음의 귀중성

우리가 짧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믿도록 허락하셨다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모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깨어있도록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염려가 아니고 깨어있음입니다.

걱정이 아니고 깨어있음입니다.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음의 귀중성! 정말 놀라웁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자신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므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형제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힘이 없어하는 이를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한 분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상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의 실상이 있기에 값진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귀중성!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음의 귀중성!!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기도

하재혁 집사

속세에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로서 주님을 찾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주시기에
세상 속에서 갖고 갈 수 없는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삶이 수고와 고난의 연속이기에
인생에 잠시 즐거움이 있다 한들
긴 여정이 어두운 두려움뿐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갖고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순종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못난 나무가 마지막까지
산을 지킨다고 했듯이
부족한 나의 모든 것을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높고도 숭고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기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믿음과 순종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공의의 주님이시며 질서의 주님!
은혜를 눈으로 보기를 갈망하기보다
기도 가운데
가슴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친밀하신 주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밀리지도 않으며
미루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곳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도
찾아가겠으니

성령충만함이 샘물처럼 솟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9월 3일(36주) 31권-36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